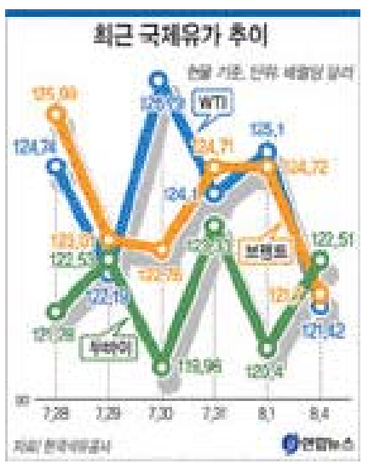
# 유가 120달러…3개월만에 최저

## 미 석유수요 감소 전망 … WTI, 3% 떨어져

## 조만간 배럴당 100달러 수준 하락 가능성도




4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열대성 폭풍 에두아르두의 세력 강화 가능성 예보에도 불구, 미국경제 악화로 인한 석유소비 위축 전망으로 인해 장중 12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주 종가에 비해 3.69달러, 3% 하락한 배럴당 121.41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이는 지난 5월 5일 배럴당 119.97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9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지난주에 비해 3.55달러, 2.9% 떨어진 배럴당 120.63 달러를 기록했다.

유가는 이날 장중 한때 배럴당 12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장 후반 소폭 반등해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됐다.

DTN의 대린 뉴섬 수석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다음 지지선은 100달러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조만간 그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연합뉴스

# 국제 금속·곡물 가격도 급락세

## 세계 경제둔화 우려 속 19개 상품지수 3.4% ↓

## 구리·백금 등 4~6% 하락 … 6개월만에 최저치

원유와 금속·곡물 등 그동안 고공비행을 했던 국제 상품가격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 우려속에 급락, 가격거품이 꺼지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및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원유 등 19개 상품으로 구성된 로이터·제프리스 CRB 지수는 4일 3.4% 하락한 401.98을 기록해 5월2일 이후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수의 하루 낙폭으로는 3월 이후 5개월만에 가장 컸다.

이 지수는 7월에는 10% 떨어지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던 1980년 3월 이후 2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장중에 배럴당 119.50달러까지 떨어져 120달러를 밑돌기도 한 가운데 지난주 종가보다 3.69달러(3%) 내린 121.41달러에 거래를 마쳐 3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9월 인도분 구리가격도 4% 가량 떨어진 파운드당 3.44달러에 거래를 마치고 백금가격도 6% 가까이 떨어지면서 각각 6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알루미늄·니켈·납·아연 등 다른 금속가격도 급락했다. 설탕가격도 6.5% 떨어진 파운드당 13.21달러에 거래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12월 인도분 옥수수 가격은 29.5센트 떨어진 부셸당 5.555달러에 거래를 마쳐 3월24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6월의 최고치에서는 30%나 하락한 가격이다. 11월 인도분 콩 가격도 가격제한폭인 70센트 까지 떨어지며 부셸당 12.95달러를 기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국제 상품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그동안 고공행진을 했던 상품가격을 급락세로 반전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

## 車·조선·IT 수출 '비상'

글로벌 경기둔화가 심화하면서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3대 수출업종에 빨간불이 켜졌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업종의 간판기업 현대차의 주가는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대수가 줄어든 가운데 지난 5월 9만1천400원에서 최근 7만원 안팎까지 떨어진 후 반등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

현대차는 7월 한달간 국내에서 5만2천535대, 해외에서 13만9천662대 등 총 19만2천197대를 판매해 전년동기 대비 3.6% 감소한 실적을 기록하며 200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월간판매 감소를 나타냈다.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6~13% 가량 급락했던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주는 이날도 3~5% 급락하며 시장 전체 하락세를 주도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세계정상권의 IT대표주들도 경기둔화로 인한 실적부진을 비켜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가도 전고점 대비 30% 가량 하락한 상태다.

철강·금속업종 지수도 전날보다 5.28% 급락하며 업종 하락률 1위에 올라 '빨간불'이 켜졌다. 대표주 POSCO가 4.87% 내리며 50만원 아래로 주저앉았고, 현대제철(-6.33%), 동국제강(-10.56%), 대한제강(-11.38%), 현대하이스코(-6.07%), BNG스틸(-4.39%) 등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삼성 MP3 플레이어 'U4' 출시**

삼성전자는 5일 감성적인 디자인과 함께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능을 대폭 강화한 USB 타입 MP3 플레이어 'U4'(모델명 YP-U4)를 출시했다. 'U4'는 지난해 100만 대 이상 판매된 인기모델 'U3'의 후속 제품으로 크리스털 로즈, 네이비 퍼플, 오션 블루의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고, 고광택 재질에 각각의 색상이 물드는 듯한 느낌의 감성 디자인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 서민생활 직결 생필품 값내리기 적극 나선다

## 밀가루값 하락에 라면·빵 등 인하 유도

정부가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라 여력이 생긴 생필품 가격의 인하를 적극 유도한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밀가루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라면과 빵 등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을 인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차관은 차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회의를 위한 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의미 있는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며 "소비자들의 대차대조표에도 일부 개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낙엽 한 잎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고 언급, 물가상승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됐음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신학기를 앞두고 교복·참고서 등 가격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